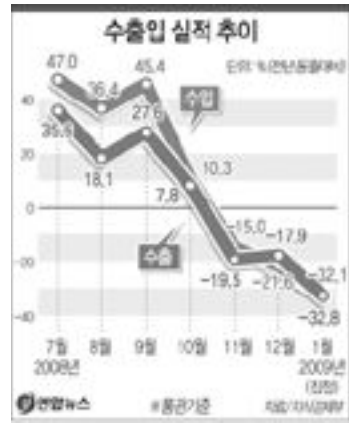


■ '수출 쇼크' ... 위기의 지역경제

車·반도체·유화 '동반 침몰' 당분간 호전 기미 없어 막막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세계 경기 침체로 1월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0나 급감한 것이다. 한마디로 '수출 쇼크'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광주·전남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 광주 수출 붐과 = 지난해 200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광주의 경우 충격이 더 크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년 101억달러보다 7.2% 감소한 94억1천200만달러에 그친 데 이어, 1월 수출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시장에서 석유제품,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수출 물량이 40% 가량 줄었다. 전남도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6% 감소한 290억 달러에 그쳤다.

◇ '당분간 손 쓸 방법 없다' = 문제는 수출 급감세가 상당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후퇴(recession)국면으로 밀어넣고 있는 데다 급가치 선진국을 필두로 보호무역 책체가 짙어지고 있어 앞으로 30%대의 수출 감소는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 감소가 너무 가파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1월 자동차 수출물량은 전년보다 무려 50% 급감했다. 1만8천여대에서 9천여대나 수출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40%나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업체인 엠코코리아의 1월 수출액도 지난해 12월보다 500여만달러 감소한 1억1천100여만달러에 머물렀다.

더욱이 자동차는 광주 수출 비중의 24.1%, 반도체는 22.6%나 차지한다. 기아차가 광주 제조업 매출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2.8% 감소한 216억9천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기록한 수출 감소폭 중 최대 규모다. IT기업이 꺼지던 지난 2001년 7월에 기록한

21.2% 감소보다 폭이 더 크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 일제히 수입을 줄인 게 결정타가 됐다. 수출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업체들의 단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 1월 수출의 감소폭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수출이 당장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전망은 몹시 부정적이다. 30% 가량의 수출 감소는 몇 번은 더 감수해야 할 것인 전망도 나온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신용 책가방 신기하네

2월 롯데백화점 광주점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어린이 고객 위급할 때 잡아 당기면 경고음이 울리는 호신용 벨을 장착한 책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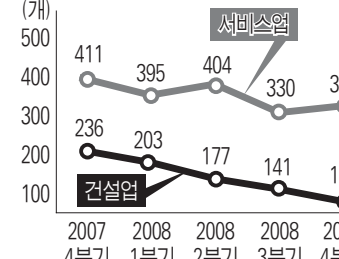
지역 신설법인 줄었다

작년 3천여개 ... 불황 '직격탄' 건설업 급감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신설법인수가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일 발표한 '2008년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신설법인수는 3천167개로 전년의 3천192개보다 5.5%(176개) 줄어 들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신설법인수가 637개로 전년(793개)보다 19.6%(156개)나 급감했고, 서비스업도 1천

488개로 1년전에 비해 111개(6.9%)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미분양아파트 증가와 공공부부 발주 감소 등 부동산경기 침체, 서비스업은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창업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2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창업이 2천695개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85.1%)보다 4.2%포인트 상승한 89.3%를 기록했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추이



지역별로는 광주가 31개로 소폭 감소한데 반해 전남은 145개가 줄어 들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광주지역 창업건수에 못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과 서비스업 창업이 급감했고 소규모 창업 비중이 갈수록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원자재값 내렸어도 생필품값 올라

1월 소비자물가 광주 3.4, 전남 3.7% 상승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광주·전남지역 주요 생필품 가격은 올랐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광주가 3.4%, 전남이 3.7%씩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생필품 가격 인상이 주도했다. 양파(70.5%), 닭고기(45.5%), 고등어(43.2%), 설탕비누(36.5%), 우유(33.8%)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올랐다.

또 택시요금(18%), 한방진료비(12.2%), 고속버스 요금(6.1%) 등 공공서비스 부문 가격도 상승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전월대비 광주 3.4%, 전남 2.6%씩 올랐다. 콩고추(22.1%), 호박(17.8%), 오이(15.4%), 닭고기(14%) 등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7개월째 하락했다.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덕분에다. 석유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LPG가 23.8%(자동차용), 18.6%(취사용)까지 하락했으며, 등유도 7%가량 내려갔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겨울철 농수산물에 대부분 하우스에서 생산돼 날씨가 추워지면서 출하물량이 감소한데다 설 명절 영향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中企 정상 가동 4곳 중 1곳뿐

감산·조업단축 여파 지난달 가동률 65% 그쳐

지난달 광주·전남 중소기업 가동률이 전월보다 2.1% 포인트 하락한 65.1%에 그쳐 9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체는 4곳 가운데 1곳에 불과했다.

2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9~15일 까지 1주일 동안 중소기업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2.1% 포인트 하락한 65.1%로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 73.8% 이후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2007년 같은 달에 비해 6.0% 포인트가 급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62.2%, 전남은

67.4%로 전월대비 각각 3.0% 포인트와 1.3% 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 평균가동률은 기타운송장비제조(73.8%), 의료·정밀·광학기기제조(71.3%) 업종만이 비교적 높은 가동률을 보였고, 대부분 업종이 65% 이하의 낮은 가동률을 나타내는 등 모든 업종이 정상가동률 80%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특히 중소기업체는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 지난해 12월 정상가동업체(가동률 80% 이상) 비율이 전월대비 3.8% 포인트 하락한 25.8%에 불과했고 전년 동월보다 무려 18.3% 포인트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novita http://www.novita.co.kr 아직도 비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집들이선물! 호도선물! 신혼부부 필수품! 근무하는 건물/사업장, 공부하는 학교, 생활하는 아파트/주택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